



3차 과제

3월 2주차

시가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석정, '어느 지류에 서서'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한 줄기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검은 밤이 흐른다.
은하수가 흐른다.

㉠ 낮은 밤에 숨막히는 나도 흐르고

은하수에 빠진 푸른 별이 흐른다.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못 견디게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빛나는 태양이 / 다다를 무렵

㉡ 이 강물 어느 지류에 조각처럼 서서

나는 다시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리…….

(나) 구상, '초토의 시 1'

판자집 유리퍽지에
아이들 얼굴이 /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 내리쬐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A] 저기 언덕을 내리달리는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다) 정진규,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어쩌랴, 하늘 가득 머리 풀어 울고 우는 빗줄기, 트랙에 와 가득히 당도하는 저녁 나절의 저 음험한 비에 의 어깨들, 오, 어쩌랴, 나 차가운 한 잔의 술로 더불어 혼자일 따름이로다. 트랙엔 작은 나무 의자 하나, 깊이 젖고 있을 따름이로다. 전재산(全財産)이로다.

어쩌랴, 그대도 들으시는가, 귀 기울이면 내 유년(幼年)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는 살아남아 울도다. 오, 어쩌랴, 때가 아니로다, 때가 아니로다, 때가 아니로다, 온 국토의 별판을 기일게 기일게 혼자서 건너가는 비에 젖은 소리의 뒷등이 보일 따름이로다.

㉡ 어쩌랴, 나는 없으랴. 그리운 물. 설설설 끓이고 싶은 한 가마솥의 뜨거운 물. 우리네 아궁이에 지피어 지던 어머니의 불, 그 잘 마른 삭정이들, 불의 살점들. 하나도 없이 오, 어쩌랴, 또 다시 나 차가운 한 잔의 술로 더불어 오직 혼자일 따름이로다. 전재산(全財産)이로다, 비인 집이로다. ㉠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하늘 가득 머리 풀어 빗줄기만 울고 울도다.

[문제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6)

- ① (가)와 (나)에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는 과거와 현재를 병치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내적인 갈등의 해소 과정이 드러나 있다.
- ④ (가)~(다)의 화자는 모두 사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문제 2] [시]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그 결과를 두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7)

<보 기>

한 소녀가
저기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
미소를 머금은 소녀는
죄가 하나도 없다.

- ① 시상이 좀더 집약되었다는 느낌이 들어.
- ② 일상적인 어법을 파괴한 시적 표현이 되었군.
- ③ '죄'라는 시어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
- ④ 소녀의 모습이 좀더 생기 있게 그려진 것 같아.
- ⑤ 소녀와 화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군.

[문제 3] <보기>는 (다)의 **이 무기**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보기>를 활용하여 (다)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8)

<보 기>

‘이무기’는 어떤 저주에 의하여 용이 되지 못하고 물속에 산다는, 여러 해 묵은 큰 구렁이를 가리킨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기 위해서는 천 년을 묵은 뒤 적절한 때에 비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랫동안 묵은 이무기는 한이 쌓여서 나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 ① ‘이무기’는 승천하지 못한 한을 품은 존재로서, 한을 안고 슬픔에 젖어 있는 시적 화자를 표상한다.
- ② ‘비’는 ‘이무기’의 한 맺힌 슬픔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③ ‘유년(幼年)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는 살아남아’라는 표현으로 보아 시적 화자는 한스러운 과거와 단절되고 싶어한다.
- ④ ‘때가 아니로다’는 ‘이무기’의 독백을 빌려 시적 화자의 한탄을 드러내는 말로 볼 수 있다.
- ⑤ ‘이무기’가 ‘온 국토의 별판을 혼자서’ 건너간다는 표현으로 보아 이 노래는 민족 전체의 한을 표현한 것으로 확대해 볼 수 있다.

[문제 4] ㉠과 시적 정조가 가장 유사한 것은? 149)

- ①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 ② 바람은 탄 데서도 오고 /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 김수영, ‘절망’ -
- ③ 그대는 아는가 /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 오세영, ‘열매’ -
- ④ 우리가 슬픔을 사랑하기까지는 / 슬픔이 우리들을 완성하기까지는 / 슬픔으로 가는 새벽길을 걸으며 기도하라. / 슬픔의 어머니를 만나 기도하라.
- 정호승, ‘슬픔을 위하여’ -
- ⑤ 마을아 역센 풀아 무너진 흙담들아 / 언젠가 돌아가리라 너희들 물 틈으로 / 나 또한 한 많은 물방울 되어 세상길 흘러 흘러 / 돌아가 고향 하늘에 홀로 글썽이리.
- 이동순, ‘물의 노래’ -

[문제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0)

- ① ㉠ :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화자가 역사의 중심에서 비껴서 있음을 암시한다.
- ③ ㉢ : 아이들의 아름다움에 취한 화자의 감동이 드러나 있다.
- ④ ㉣ : 화자의 현실 인식과 대응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 ⑤ ㉤ : 화자의 내면이 사물을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시가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자 미상, '정읍사'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녀려신고요
 어귀야 ㉡즌 디를 드디올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 내 가는 디 점그를세라.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나) 이항복의 시조

鐵嶺(철령) 노픈 峯(봉)을 식여 넘는 저 구름 아.
 孤臣冤淚(고신 원루)를 비 사마 찍여다가,
 님 계신 九重深處(구중 심처)에 뿌려 본들 엇드리.

(다) 정철, '사미인곡'

東동風풍이 건듯 부러 積적雪설을 헤터내니, 窓창 밧긔 심근 梅梅花화 두 세 가지 띄여세라. 窅窅 冷냉澹담
 훈디 暗암香향은 므스일고. 黃황昏昏의 둘이 조차 버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梅花화 것거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꽃 디고 새넙 나니 綠綠陰陰이 썩렸논디, 羅羅帷帷寂寂寞寞하고 繡繡幕幕막이 뷔여 있다. 芙부蓉蓉을 거더 노
 코 孔공雀작을 둘러 두니, 갸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鴛鴦鴦錦錦 버혀 노코 五오色색線線선 플터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手手品品은 쿠니와 制制度도도 7 즐시고. 珊珊瑚瑚樹樹슈 지게 우히 白白玉玉
 函函의 다마 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①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千천리리 萬
 만리리 길을 뉘라셔 차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넬 제, 危危樓樓에 혼자 올라 水水 수晶정簾簾 거든말이. 東동山산의 둘이 나고 北북極극
 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淸光光을 쥐어내여 鳳봉鳳凰樓樓의 붓티고져. 樓樓우히
 거러 두고 8 팔荒荒의 다 비최여, 深深山山 窮窮谷谷곡 점났7티 밍그쇼셔.

乾乾坤坤이 閉閉塞塞식혀야 白白雪雪설이 흰 빗친 제, 사툼은 쿠니와 놀새도 굶쳐 있다. 瀟灑灑湘湘 南남畔畔만도 ②치
 오미 이러거든 玉玉樓樓高高處處야 더욱 님너 므스허리. 陽陽春春을 부쳐내여 님 겨신디 쏘이고져. 茅모簷檐 비친
 히를 玉玉樓樓의 올리고져. 紅紅裳裳을 니미치고 翠취袖袖를 半반만 거더. 日日暮暮모脩修竹竹독의 薺가림도 하도 할샤.
 님의 히 수이 디어 ③긴 밭을 고초 안자. 靑淸燈燈 거른 것티 鈿鈿箜篌篌후 노하 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턱뵈
 고 비겨시니, 蕭蕭蕭金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흐르도 열두 새, 흰 돌도 설흔 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모습의 미쳐 이서 꺾골髓수의 쉼터시
니, ㉠扁鵲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히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브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쪽쪽 안니다가, 향 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줄 모르샤도
내 님 조초려 호노라.

[문제 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1)

- ① 계절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하고 있다.
- ② 화자와 임 사이의 거리감이 드러나 있다.
- ③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마음이 그려져 있다.
- ④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경건한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시상이 전개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극적으로 반전된다.

[문제 2] <보기>의 설화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다)에서 이와 유사한 심리가 드러난 것은? 152)

<보 기>

정읍현에 사는 사람이 행상을 떠난 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의 아내가 산에 올라가 멀리 남편이 간 곳을 바라보며, 남편이 밤에 다니다가 해를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진흙에 빠짐에 비유하여 노래하였다. 세상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내가 서 있던 고개 위에 망부석(望夫石)이 있다고 한다.

- ① 𪗇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 ② 危樓樓루에 혼자 올라 水晶晶정簾縠 거든말이
- ③ 陽陽春춘을 부쳐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 ④ 日일暮모 脩修竹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 ⑤ 鳶鳶翁翁금도 초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쉼고.

[문제 3] (나)의 '구름'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어를 (다)에서 찾으시면? 153)

- ① 동풍
- ② 미화
- ③ 녹음
- ④ 놀새
- ⑤ 청등

[문제 4]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시어가 아닌 것은? 154)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문제 5] ㉠에 나타난 화자의 심정을 시로 읊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55)

- 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 김동명, 「내 마음은」에서
- ②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
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 신경림, 「목계장터」에서
- ③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노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에서 -
- ④ 감추인 사랑이 석류알처럼 터지면/ 그대는 가만히 이 사랑을 안으려나이까?/ 내 곁에 계신 당신이운데/
어이 이리 멀고 먼 생각의 가지에서만/ 사랑은 방향하다 돌아서 버립니다.
- 모윤숙, 「기다림」에서
- ⑤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탄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걸 아니에요?
- 서정주, 「춘향유문」에서

서사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우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 2주일 만에 학교에 나왔다. 악수 세례가 쏟아지고, 등을 두드리고, 체육 시간에는 행개래까지 시키려고 했지만 형우가 도망을 쳤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숨죽여 기표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힌 아이들은 섬뜩한 느낌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다. 나는 후우 - 가슴을 쓸어내렸다.

“형, 우리 미술 시간에 라면 먹으러 갈까?”

내가 말을 건넸다. 우리들은 가끔 후동 교사 뒷담을 넘어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사먹은 다음 감쪽같이 들어오곤 했다. 재수파들이 그 전문이었던 것이다.

“필요 없어.”

기표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통명스럽게 뺐었다. 그는 국어책을 읽고 있었다. 안톤 슈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A)

다른 반 애들이 말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임형우의 일화가 예로 들어지면서, 학우를 아끼고 의리로써 지켜 준 참다운 우정과 반의 결속을 위해 담임 선생과 함께 남모르게 애써 온 그 숨은 이야기가 술술 펼쳐지더라는 것이다. 교정에 모여 선 아이들도 입에입에 형우의 얘기로 만발했다.

“우리들이 커닝을 도와준 것이 기표의 비위 를 상하게 한 모양이지?”

병원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을 생각해 못 물어 본 걸 하룻길 돌만의 자리가 됐을 때 내가 넌지시 물어보았다.

“글쎄 그런 것 같았다.”

형우가 짐짓 좌우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그때 그 일,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넘겨짚자 형우가 한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언제고 밝히고 싶었던 것이라 나는 다시 다그쳤다.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한 건 사실이다.”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나?”

“아니다. 담임 선생님이 기표를 나한테 일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기표를 구원해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랬겠지. 형우야, 넌 지금 네가 기표를 구원했다고 보니?”

“아직 완전히는…… 그러나 멀지 않았다.”

나는 웃어 주었다.

“기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 형우, 네가 구원해 주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은 기표가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서워했던 건 기표가 아니라 기표를 둘러싸고 있는 재수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은 없어졌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모두 나한테 사과하러 왔었다. 하나하나 서로가 모르게 다녀갔다.”

“기표도 왔었니?”

내가 혈떡이면서 물었다.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난 그런 놈한테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

그럴 테지. 나는 후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 다른 애들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재수파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물론 겉으로야 그대로 남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빨 뺀 뱀이나 다름없어. 개들이 모두 나한테 말 했다. 기표는 악마라고. 자기들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라고.”

형우와 갈라서야 하는 길목에 와 있었다. 나는 형우네 집 쪽으로 따라가며 물었다.

“너 지금 무슨 얘길 하는 거냐?”

형우가 나를 향해 싱긋 웃었다.

“기표는 다 아는 것처럼 가난한 집 애다. 거기다가 그 부모가 다 병들어 누워 있다. 시집간 기표 누나가 대주는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산댄다. 기표 동생이 셋이나 있다. 기표 바로 밑의 동생이 버스 안내원을 해서 생활비를 보냈는데 요즘 무슨 일로 해서 그것도 그만두었다. 아무튼 생활이 말두 아닌 거야. 재수파들이 매달 얼마씩 모아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거야. 집에서 돈을 뜯어낼 수 없는 애들은 혈액 은행에 가 피를 뽑아 그 돈을 내놓았다는 거다.”

“그렇게 해 달라고 기표가 강요한 건 아닐 텐데.”

“마찬가지다. 재수파들은 기표가 무서웠다는 거야.”

“지금도 무서워하고 있는 걸.”

“그렇지 않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혈색이 더 좋아진 형우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이제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될 거다.”

형우가 손을 흔들고 자기 집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는 유능한 반장이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씩씩한 느낌이 가슴을 스쳤다. <중 략>

모 일간지 편집부국장을 지내는 학부형이 우리 반에 있었다. 담임 선생님과 반장이 그 학부형을 만나러 갔다. 그 신문사 기자가 학교에도 여러 번 다녀갔다.

며칠 뒤에 신문 미담란에 우리 반 얘기가 크게 다뤄졌다. 박스 기사였다. 기표의 가혹한 효성에서부터 재수파들의 우정어린 피땀기와 급우들로부터 시작된 친구돕기 운동이 전교적으로 파급되어 이룩한 성과가 자세하게 났다. 기표의 여동생 얘기도 끼어 있어 그 기사를 읽은 우리들의 콧등이 새삼 찡했다. 기사 맨 위에 담임 선생님과 반장, 그리고 기표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교장 선생님 지시에 의해 그 기사는 각 교실 후편 게시판에 붙이게 돼 있었다.

그 신문 기사가 나가고부터 월요 조회 때마다 교장 선생님은 사회 각계에서 보내오는 성금과 위문 편지를 최 기표에게 전달했다. 담임 선생님도 종례 때면 기표에게 편지 여러 장을 건네며,

“거기 여학생 편지도 많이 있으니깐 혼자 몰래 보라구.”

아이들이 와하하 웃었다. 기표가 얼굴을 벌겍게 달구며 편지 다발을 책상 속에 넣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실로 화기애애한 반이 되었던 것이다.

“기표 얘기가 영화로 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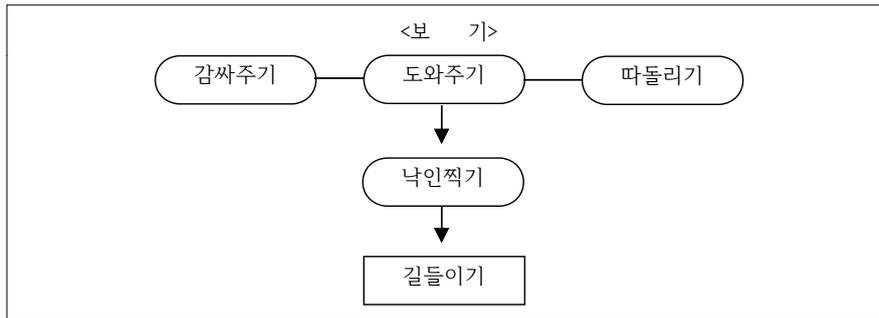
“그렇대. 재수파들을 중심으로 한 애긴데 TV에 나오는 제3교실 같은 거겠지.”

어디서 나온 애긴지 기표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형이라고 호칭하는 아이도 드물었다. 아무나 곁에 가서 말을 걸 수가 있었고 때로는 어깨도 쳤다.

- 전상국, '우상의 눈물'

[문제 1] 위 글의 사건 전개 과정은 <보기>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낙인찍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156)



- ① 아이들이 기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 ② 기표가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가 되었다.
- ③ 기표가 칭찬을 받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었다.
- ④ 형우가 기표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의논하였다.
- ⑤ 재수파들이 형우에게 기표를 악마라고 말하게 되었다.

[문제 2] '나'와 '형우'의 대화 양상으로 보아 '나'의 말하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57)

- ①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한다.
- ② 추측했던 것의 진위를 확인한다.
- ③ 상대방에게 다음 말을 재촉한다.
- ④ 앞으로의 일을 넌지시 알게 한다.
- 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묻는다.

[문제 3] <보기>는 비위와 관련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8)

<보 기>

'비위(脾胃)'는 원래 인체의 장기인 '비장'과 '위장'을 일컫는 말인데 비유적 의미로 확대되어 '어떤 음식물이나 일을 삭여 내거나 상대하여 내는 성미'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 ① 그 말이 **패부**를 찌른 것이다.
- ② 아이가 들어오지 않아 **애**가 탄다.
- ③ 그들에게 **쓸개**까지 내놓을 작정이냐?
- ④ 적의 총부리가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 ⑤ 나는 그의 잔인한 행동에 **간담**이 서늘했다.

[문제 4] <보기>를 참고하여, (A)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9)

<보 기>

- (A)를 통해 기표의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① 재스민의 향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 향기는 항상 나에게, 창 앞에 한 그루 노목(老木)이 섰던 나의 고향을 생각나게 한다.
- ② 달리는 기차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유령의 무리처럼 요란스럽게 지나가는 불 밝힌 차창(車窓)에서 미소를 띤 옛날 소녀의 모습이 보일 때.
- ③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庭園)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별이 떨어져 있을 때.
- ④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곁방에 문이 열리고 소곤거리는 음성과 함께 남아빠진 현시계가 새벽 한 시를 둔탁하게 치는 소리가 들릴 때.
- ⑤ 당신의 살던 집에서는 낯선 이의 얼굴이 내다보고, 왕처럼 경이롭던 아카시아 숲도 이미 베어 없어지고 말았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문제 5] 위 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0)

- ① 나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보면서, 인간의 적대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어.
- ② 나는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 ③ 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폭력이나 사실의 왜곡 등은 사회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 ④ 나는 ‘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대립되는 인물들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
- ⑤ 나는 문체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군더더기가 별로 없는 깔끔한 문장으로 쓰여 있어 읽기가 편했어.

서사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물 사이의 관계] 화옥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심씨에게서 장자 화춘을, 정씨에게서 차자 화진을, 그리고 요씨에게서 딸 화빙선을 얻었다. 요씨는 일찍 죽었고, 후에 화옥과 정씨가 잇달아 죽었다. 성 부인은 화옥의 누이로, 과부가 되어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하루는 요 부인의 유모 취선이 빙선 소저를 대하여 흐느끼며 이르기를, “어르신과 정 부인의 은덕으로 소저와 둘째 공자(公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더니, 두 분이 돌아가시매 문득 독수(毒手)에 들었으니 이 늙은이가 차라리 먼저 죽어 그 일을 아니 보고자 하나이다.” 소저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지 않더니, 취선이 또 말하기를, “정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거하시던 수선루(仙樓)의 시녀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은 자 많으니, 아아, 정 부인이 어찌 남에게 해악을 끼쳤으리오?” 하니, 소저 또 대답하지 않더라.

이를 난향이 창밖에서 엿듣고 심씨에게 고한다. 심씨 시비(侍婢)를 시켜 소저를 잡아 와서 꾸짖기를, “네 년이 감히 흉심(凶心)을 품고 진이와 함께 장자(長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천한 종 취선과 모의한 것이 아니냐?” 하니, 소저가 당혹하여 말도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흘릴 따름이라. 심씨 또 화진 공자를 오라 하여 마당에 꿇리고 큰 소리로 죄를 묻기를, “네 이놈 진아, 네가 성 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선친(先親)을 우롱하여 적장자(嫡長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 하늘이 돕지 않아 대사(大事)가 들어졌더니, 도리어 요망한 누이와 흉악한 종과 함께 불측(不測)한 일을 꾀하였도다.” 하니,

공자가 통곡하며 우러러 여짜오되, “사람이 세상에 나매 오륜(五倫)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지간이 더욱 중하니,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 소자 선친의 혈육으로 모부인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누이가 비록 취선과 말하긴 하였으나 사사로운 정을 나눔이 큰 죄 아니고, 혹 원망의 말이 있었어도 취선이 하였지 누이가 하지는 않았으니, 바라건대 모친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베푸소서.” 소저 여짜오되, “큰집 작은집이 모두 혈육이니 이 자리를 빼앗고 저 사람과 협력한다는 말씀은 만만부당하나이다.” 하니, 심씨 크게 노하여 쇠책찍을 잡고 소저를 치려 하니, 공자는 방성대곡(放聲大哭)한다. 화춘의 부인 임씨가 심씨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니 심씨 더욱 노하여 노비로 하여금 공자를 잡아 내치라 하고, 임씨를 꾸짖어, “너도 약한 무리에 들어 나를 없애려 하느냐?” 하더라.

이때 비복(婢僕)들이 황황히 중문 밖에 모여 흐느끼더니, 마침 빙선의 약혼자 유생이 화씨 집으로 오다가 공자가 찢어진 베옷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물으니 공자가 부끄러워 대답을 못하는지라. 유생이 큰 변이 있는 줄 알고 화춘을 만나려고 시묘(侍墓)하는 곳에 가니 춘이 없는지라. 동자가 한송정(寒松亭)에서 낮잠이 드셨다고 아뢰니, 유생이 그곳에 올라 보니 과연 대공자(大公子)란 자가 창틀에 다리를 높이 얹고 코를 골며 옷을 풀어 헤치고 자고 있거늘, 유생이 탄식하기를, “쯔쯔, 도적(盜跖)과 유하혜(柳下惠)*가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더니, 어찌 오늘 다시 이런 형제를 보는가?” 하고 발로 차서 깨우면서, “그대의 집에 큰 변란이 일어났으니 빨리 가 보라.” 하니라.

화춘이 놀라 급히 내당에 들어가니 심씨 바야흐로 계향으로 하여금 빙선 소저를 매질하고 취선은 이미 6, 70대를 맞고 다 죽어 가는지라. 심씨 화춘이 오자 손뼉 치고 펄쩍펄쩍 뛰면서 소저와 취선의 말을 더욱 꾸며서 화춘을 격노케 하니,

[A] 화춘이 이르기를, “소자 이미 진이 남매가 이 같은 마음을 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둘이 고모와 합심하였으니 형세로는 지금 당장 제거하지 못하고, 아까 유생이 이미 이 변을 알고는 얼굴빛이 좋지 않았나이다. 또 고모께서 머지않아 돌아오시면 반드시 크게 꾸짖으실 것이니 이번은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심씨가 땅을 두드리며 발악하기를, “성씨 집 늙은 과부가 내 집에 웅거하여 생각이 음흉하니 반드시 우리 모자를 죽일지

라. 내 비록 힘이 모자라나 그 늙은이와 한판 붙어 보리라. 또 유생은 남의 집 자식이라. 어찌 우리 집안의 일을 알리오. 필시 진이 유생에게 알려 나의 부덕함을 누설하였으리니 내가 응당 네 앞에서 결단하리라.” 하니,]

화춘이 부득이 화진 공자를 붙들어 와 가혹한 매를 가하니, 공자가 이미 그 모친과 형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한 마디 변명도 없이 20여 장(杖)에 혼절(昏絶)하는지라.

- 조성기,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 도척: 중국 춘추 시대의 유명한 도척.
유하해: 도척의 형. 어진 인물.

[문제 1] 윗글에 그려진 갈등의 근본 원인은? 161)

- ① 심씨와 화춘이 화진과 빙선의 도덕성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 ② 심씨가 자기 가문의 일에 간섭하는 성 부인을 축출하고자 한다.
- ③ 심씨가 가문 내에서 화춘이 지닌 장자로서의 권한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 ④ 심씨가 남편과 다른 두 부인이 죽은 후, 두 부인의 소생(所生)들을 배척한다.
- ⑤ 심씨가 화진과 빙선이 자기를 친모(親母)로 대접하지 않는 데에 대해 보복하고자 한다.

[문제 2]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의 화진과 화춘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162)

<보 기>

부모의 뜻이 의리(義理)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먼저 그 뜻을 받들어 따르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여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 뜻이 만약 이치를 해치는 것이라면 곧 기운을 화평하게 하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간(諫)하여 반복 개진(開陳)함으로써 끝내는 이치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 이이, 격몽요결 -

- ① 진아, 네 어머니로 인해 애통한 심정이겠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어머니께서 의리를 깨닫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정성껏 아뢰어라.
- ② 춘아, 너에게는 집안의 분란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으니 분란을 일으킨 진과 빙선을 훈계하여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드려라.
- ③ 진아, 네 어머니 앞에서 통곡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당당하게 네 어머니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시게 하여라.
- ④ 춘아, 네 어머니의 심정과 처지를 잘 이해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네가 먼저 나서서 일을 주선하도록 하여라.
- ⑤ 진아, 네 어머니께서 비록 너를 미워하기는 하시지만 본뜻이 잘못되지는 않았으니 그 뜻을 받들어 묵묵히 따라라.

[문제 3] [A]에서 심씨와 화춘이 나는 대화의 특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63)

- ① 화춘은 감정을 앞세워 말하였고, 심씨는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였다.
- ② 화춘은 사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말하였고, 심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였다.
- ③ 화춘은 두 가지 관점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였고, 심씨는 그 중의 하나를 받아들였다.
- ④ 화춘은 정황을 근거로 의견을 말하였고, 심씨는 그것을 자기대로 해석하면서 반박하였다.
- ⑤ 화춘은 과거의 일을 예로 들어 주장하였고, 심씨는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여 화춘을 설득하였다.

[문제 4] 윗글을 읽고 나서 보인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4)

- ① 갈등의 양상이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있어서 흥미가 있군.
- ② 시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인상이 선명하군.
- ③ 윤리적 덕목을 내세워 독자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강한 것 같아.
- ④ 당대의 사람들이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짐작할 만해.
- ⑤ 정도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갈등은 다른 고전 소설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문제 5] 윗글에 나온 인물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65)

- ① 화춘은 화진에게 면종복배(面從腹背)하고 있어.
- ② 화진과 빙선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로군.
- ③ 심씨가 화진에게 한 말은 견강부회(牽強附會)로군.
- ④ 형제라 하더라도 화진과 화춘은 천양지차(天壤之差)야.
- ⑤ 빙선은 심씨로 인해 각골지통(刻骨之痛)을 느꼈을 거야.

비문학 독서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사회적 존재로서의 하잘 것 없는 표시들 하나 하나에도 관심 어린 시선을 주는 소박한 사람들은 포도주에다 '통과 의식'의 역할을 위임했다. 성체 배령을 하는 날이나 특별 미사가 있는 날, 아이들은 통과 의식으로서 첫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된다. 그들은 아주 소박해서, 처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아이의 주위에 모여서 그 아이가 마지막 한 모금까지 다 마셨을 때 박수를 치기도 한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 보는 숭사탕이나 제일 처음 차보는 손목시계, 때로는 그것은 전생애에 걸쳐서 보관하게 되는 유일한 것** 일 수도 있다. 제일 처음 갖게 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다. 우리아이들 중에서 아직도 그 첫 번째 포도주 맛을 기억하는 아이가 있을까?

②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입에 댈 수 있었던 '고향의 이름 없는 포도주'. 그 포도주는 알려진 것이 아니다. 전혀 유명하지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내 고향에서 만들어진 포도주이다. 학교에 갈 때면 그 포도밭 울타리를 따라 걸어가곤 했다. 그리고 그 울타리 곁 개울가에서 댐을 만들며 놀곤 했다. 그 포도주는 별로 특별한 맛을 지니지도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포도주 맛을 알고, 그 맛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포도나무 들 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왔어야 한다. 그리하여 울타리 수와 포도밭 수만큼의 포도주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 포도주들은 각 술창고의 특별한 맛을 지니게 된다.

③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포도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드넓은 평야들이 시골 마을의 이름 없는 포도주의 존재를 위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포도 재배법의 발전으로 포도주의 질을 개선하게 되자, 모든 포도주들이 서로 비슷한 맛을 갖게 되었다. 본래 각 지방의 재래식 포도주들은 시큼한 **㉢막포도주**로 변해 가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포도주가 나이를 먹어 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마침내 허리가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시골 농부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괴팍한 성격을 띠어 가는 것과 비슷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시큼한 막포도주를 마지못해 찜그리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 한다. 남부 사람들이 뜨거운 햇볕에 타서 다갈색으로 변한 북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짓는 것과 똑같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 이렇게 변해 버린 포도주 맛이 그들에게는 그리 싫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지방 사람들의 찌푸린 얼굴이 더한층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이다.

[문제 1] <보기>의 '음식, 외국인, 할머니'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뒷글에서 찾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166)

<보 기>

예전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전통 시골 마을을 찾아가 1박 2일 동안 시골 생활을 체험해 보는 코너가 있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 음식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약간은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 음식이 있다. 이러한 음식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외국인들에게 먹이려고 하신다. 그 때 외국인들은 도망을 가거나 거부를 하는데 할머니들께서는 즐겁게 웃으시면서 일부러라도 먹이시려고 한다.

| <음식> | <외국인> | <할머니> |
|--------|--------|--------|
| ① 솜사탕 | 남부 사람들 | 마을 사람들 |
| ② 막포도주 | 이방인 | 마을 사람들 |
| ③ 솜사탕 | 아이 | 시골 농부들 |
| ④ 포도주 | 아이 | 이방인 |
| ⑤ 솜사탕 | 복부 사람들 | 이방인 |

[문제 2] ㉠에 담긴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167)

① 나보고 명절날 신이라고 아버지가 사다 주신 내 신발을 나는 먼 바다로 흘러내리는 개울물에서 장난하고 놀다가 그만 떠내려 보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략>- 아버지는 이어서 그것 대신의 신발을 또 한 켤레 사다가 신겨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용품일 뿐, 그 대용품을 신고 명절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 서정주, <신발> -

② 능수버들이 지키고 섰는 낡은 우물가
 우물 속에는 푸른 하늘 조각이 떨어져 있는 운사월
 - 아주머님
 지금 울고 있는 저 빠꾸기는 작년에 울던 그 놈일까요?
 조용하신 당신은 박꽃처럼 웃으시면서
 두레박을 넘쳐 흐르는 푸른 하늘만 길어 올리시네

- 김종한, <낡은 우물이 있는 풍경> -

③ 출렁거리는 물결 소리만 귀에 적시어 눈썹 기슭에 번지는 불꽃 피눈물 들어 어룽진 동정 그리운 사연 아뢰려하여 병어리 가슴 쥐어뜯어도 헛바늘일래 말을 잃었다. 땅을 구르며 몸부림치며 궁그르다가 다시 일어나 열리지 않는 말문이런가 하늘 우러러 돌이 되었다.

- 김관식, <석상의 노래> -

④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丹靑)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등주리를 마구 쳤다.
 (중략) 패옥 소리도 없었다. 품석(品石) 옆에서 정일품(正一品) 종구품(從九品) 어느 줄에도 나의 몸돌 곳은 바이 없었다.

- 조지훈, <봉황수> -

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문제 3] ㉠과 같은 성격의 사례로 바르지 않은 것은? 168)

- ① 집에서 식혜를 만들어 먹기보다는 캔 식혜를 많이 사 마신다.
- ② 요즘 젊은 주부들은 직접 장을 담그기보다는 슈퍼마켓 등에서 사 먹고 있다.
- ③ 우리 나라의 전통 음식인 김치가 일본의 기무치로 둔갑해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 ④ 시골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던 호박엿이 기계로 짚어 낸 호박엿에 밀리고 있다.
- ⑤ 새해 아침이면 문고리에 걸려 있는 복조리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

[문제 4] ㉡이 뜻하는 바를 발전적으로 이해한 사람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9)

- ① 인생이란 조금의 망설임도 있을 수 없다. 앞만 보고 빨리 달릴 뿐이다.
- ② 인생은 시간적 경과를 거치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성숙해 가는 것이다.
- ③ 인생은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이다. 부단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만 한다.
- ④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時)테크를 통하여 하루를 24시간 이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 ⑤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휴식 시간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높여야 한다.

[문제 5] ㉢과 같은 의미의 미소는? 170)

- ① 친구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은 예지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 ② 그는 세화가 출국하던 날, 공항에서 마지막 **미소**를 지어 보였다.
- ③ 졸업 사진을 찍으면서, 영미는 “김치”라고 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 ④ 시험에 벌써 세 번이나 실패한 그에게 위로를 건네자 민수는 괜찮다는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 ⑤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한 태성이와 영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

비문학 독서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문제 의식은 어떤 사건의 문제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洞察)이요 의식이다. 그것은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져 있는 일상적 세계의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사건들의 문제점들을 꿰뚫어 보게 하며, 문제되어야 할 사건들이 문제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건들의 문제점을 들추어내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 의식의 가장 중요한 성격을 파악하게 된다. 일상성의 세계 또는 상식의 세계는 대체로 '물론(勿論)의 세계'다.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하는 세계가 바로 물론의 세계다. "일부 일처제가 옳습니까?"라고 물을 때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한다든지, "주권재민의 사상이 옳은 사상입니까?"라고 물으면 "물론 그렇고 말고요."라고 대답할 때 일부 일처제와 주권재민은 일상성의 세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② 사람들은 일상성의 세계를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특별한 의심을 품지 않는다. 때때로 그 일상성의 세계는 신성시될 때도 있다. 마치 종교인에게 있어서 절대자인 신이 그러하듯이, '물론의 세계'와 '당연의 세계'도 때때로 신비의 베일로 가려져 있고, 그것 자체가 신성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감히 아무도 그것의 ㉠ 정체(正體)에 대해서 묻고자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 것,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 대번에 잘못된 것이거나 범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소외시키거나 제거하려고 한다. 이것은 바로 일상성의 ㉡ 횡포(橫暴)다. 이러한 일상성의 세계는 한마디로 문제가 없는 세계다. 문제될 만한 것은 대체로 가려져 있지만 혹 그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즉각 제거된다. 그러므로 모두가 일상성에 대해 "지당합니다."라든지 "물론이죠."라고 합창한다. 이런 세계에서 현상과 사건의 문제성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③ 이렇게 볼 때 문제 의식은 곧 일상성의 세계를 꿰뚫어 보는 의식이다. 이것은 모두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세계의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문제성의 정체와 그 실상을 밝혀 보려는 의식이다. 모두가 "물론이죠."라고 응답할 때, "글쎄요."라고 ㉢ 회의(懷疑)하면서 현상의 표피를 뚫고 그 내용을 살펴보려는 의식이다. 특히 일상의 관습이 완강하게 받쳐 주고 있는 그 '물론'의 바탕과 내용을 파헤쳐 보려는 의식이다.

④ 따라서, 문제 의식은 허위 의식을 폭로하는 행위로 연결된다. ㉣ 허위 의식이란 복잡한 현실을 짐짓 단순화시키고, 더럽고 잘못된 현실을 짐짓 아름답게 꾸며서 그럴듯하게 정리해 놓은 거짓된 현실 인식을 말한다. 허위 의식은 대체로 아름다운 ㉤ 수사(修辭)의 낱말들로 꾸며져 있어서 사람을 홀리거나 속인다. 속이 더럽고 부끄러울수록 허위 의식은 깨끗하고 멋진 낱말들을 동원한다. 자유, 발전, 행복, 정의, 평화 등을 앞세워 자유를 제한하고, 전체적 발전을 늦추며, 행복을 깨뜨리고, 정의를 흐리며, 평화를 파괴한다. 이럴 때 문제 의식이 요청된다. 문제 의식을 갖춘 사람은 정직이라는 말로 단장된 허위 의식의 거짓된 속셈을 꿰뚫어 본다. 문제 의식에 투철한 사람은 자유를 앞세우는 억압의 행태를 알아차린다. 그는 정의를 큰 소리로 외치는 불의를 투시할 줄 안다. 그는 평화를 강조하는 폭력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다.

⑤ 문제 의식은 지식인을 지식인답게 해 주는 일종의 ㉥ 조감(鳥瞰) 의식이며 통찰력이다. 그러기에 문제 의식이 없는 지식인은 와(과) 같다. 문제 의식 없이 살아가는, 자칭 지식인이 있다면

그는 한낱 지식 기사에 지나지 않고, 문제 의식 없이 학교에 다니는 젊은 지성이 있다면 그들은 한낱 직장 예 비군에 불과하다. 문제 의식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는 지식인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뜻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제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71)

- ① 대체로 사람들은 일상성의 세계를 의심한다.
- ② 문제 의식은 일상성의 세계를 꿰뚫어 보는 의식이다.
- ③ 문제 의식은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 ④ ‘물론의 세계’에서는 사건의 문제성을 꿰뚫어 보기 어렵다.
- ⑤ 허위 의식은 현실의 참모습을 단순화시키거나 왜곡시킨다.

[문제 2]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삶의 좌우명을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72)

- ① 끝까지 처음처럼!
- ② 늘 깨어 있는 삶!
- ③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 ④ 인내만이 영광에 이르는 길!
- ⑤ 노력을 이기는 천재는 없다!

[문제 3] ㉠의 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73)

- ① 남성들이 전통을 내세우며 여성들을 차별한다.
- ② 강대국이 세계화를 내세우며 자기 잇속을 챙긴다.
- ③ 독재자가 사회 안정을 명분으로 비판자들을 탄압한다.
- ④ 지배 계급이 질서를 강조하며 피지배 계급을 억압한다.
- ⑤ 교통 경찰이 안전을 강조하며 법규 위반자를 단속한다.

[문제 4]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4)

- ① 사랑이 식은 연인
- ② 융통성이 없는 학자
- ③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
- ④ 사업 의욕이 없는 기업인
- ⑤ 전의(戰意)를 상실한 군인

[문제 5] ㉠~㉣의 사전적 의미를 잘못 풀이한 것은? 175)

- ① ㉠ 정체(正體) : 사물의 본디 형체
- ② ㉡ 횡포(橫暴) : 제멋대로 굴며 몹시 난폭함.
- ③ ㉢ 회의(懷疑) :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 ④ ㉣ 수사(修辭) :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밈.
- ⑤ ㉤ 조감(鳥瞰) : 높은 곳에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봄.